

중국출장 결과보고(중국 북경, 산둥성)

보고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출장 결과 총평

- 태안군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부에 위치하며 태안반도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 고대부터 태안반도는 국내 해상물류와 대중국 교류의 중심이었다. 그러한 증거는 태안앞바다에서 침몰한 수많은 교역선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대중국 교류협력은 최근까지 중국 내륙도시인 태안시에 국한되어 왔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향후에는 태안군과 지리와 자원 측면에서 유사한 중국의 연해안 도시, 특히 중국 산둥성의 거점 해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연태(봉래시), 위해시(영성시) 등과 적극적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다. 늦었다는 생각이 앞으로 대중국 교류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이번 10월 한상기 군수님 일행이 봉래시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향후 활발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

I. 출장 개요

1. 방문 목적

- 태안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산둥성 태안시와 교류 확대 협약 체결 및 태안시의 주요 개발 현장 방문
- 중국 동부 해안권 선진도시와 관광·수산분야 교류 방안 모색 및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 내 준비상황 파악

- 북경시 주요 관광지의 외국인 안내시스템 등 주요 인프라 구축 현황을 시찰하여 태안군 관광산업 발전 방안 모색

2. 방문 기간, 방문지, 방문단 명단

- 방문기간: 2015년 10월 26일(월)~31일(토)(5박6일)
- 방문지: 북경시, 태안시, 봉래시, 영성시
- 방문단: 한상기 태안군수 등 12명
 - 태안군: 한상기 군수, 김진환 기획감사실장, 노춘민 해양수산과장, 양수준 관광진흥팀장, 문헌순 행정지원주사, 박호성 기획감사실 주무관
 - 태안군의회: 박남규 의장, 차윤선 군의원
 -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 언론: 대전일보 정명영 태안군지국장, 충청투데이 박기명 태안군지국장
 - 통역: 한서대학교 김해란 박사

3. 주요 일정

- 10월 26일(월): 인천공항 → 북경 도착, 북경 주요 관광지 시찰(이화원, 금면왕조)
- 10월 27일(화): 북경→태안 이동, 태산 시찰, 이홍봉 당서기 예방
- 10월 28일(수): 태안시 고신개발구 시찰, 태안시장 예방, 태산간호전문학원 시찰, 태안→봉래 도착
- 10월 29일(목): 봉래각, 삼선산 시찰, 봉래시장 예방, 봉래→영성 도착
- 10월 30일(금): 영성시정부 관계관과의 간담회, 해양식품전시센터 시찰
- 10월 31일(토): 적산법화원 시찰, 위해→인천 도착

II. 주요 활동 내용(※ 『태안군 중국 결과보고』 일부 참고)

1. 제1일차(10월 26일)

- 이화원 시찰
 - 이화원은 청말 서태후가 만든 별장으로 중국 국가5A급 관광지이며 내부에 인공호수로 조성된 서호와 서호를 조성하면서 파낸 흙으로 조성한 만수산이 있음.
 - 북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답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였

으며 이전과는 달리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이 청결하고 잘 갖춰졌음.

○ 금면왕조(金面王朝) 관람

- 중국 사천성지역의 전설을 기초로 재구성한 대규모 서사극으로 현재 중국 3대 공연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음.
- 공연장 조성비만 200억 이상이 소요됐으며 2008년에는 세계테마파크 총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음.
- 화려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 로맨틱하면서도 신비로운 줄거리, 그리고 무대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무대연출은 보는 이로 하여금 쉽 없는 감탄을 자아냄.

2. 제2일차(10월 27일)



그림 1 이화원 시찰



그림 2 금면왕조 관람

○ 태산 등반

- 해발 1,546m의 태산은 중국의 오악 중의 하나로 고대로부터 제왕이 봉선의식을 거행하는 등 숭배의 대상임.
- 최근 북경과 상해간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태산을 찾는 중국관광객이 2~3배가 증가했다고 함.
- 1987년에 이미 유네스코 복합유산(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태산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홍봉(이홍봉) 당서기 예방 및 환영만찬

- 이 서기는 한상기 군수 일행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1997년 양 지역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태산국제등산제 참가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인적교류 등 지속적 교류를 희망함.



그림 4 태산 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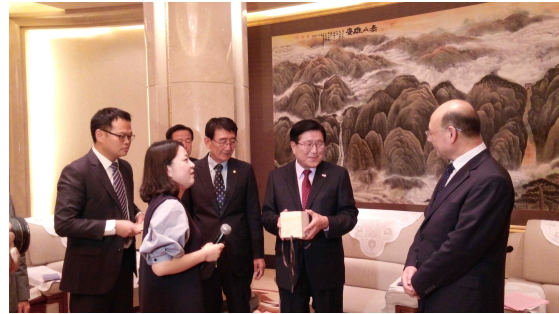


그림 3 이홍봉 당서기 예방

3. 제3일차(10월 28일)

- 고신개발구 홍보관 시찰 및 기업 방문
 - 태안시 고신개발구는 약 1,000여개의 입주기업과 50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 이곳에는 중국 최대의 유제품 회사 중의 하나인 명뉴그룹과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한 현대중공업이 입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내수부진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였음.
- 왕운봉(王雲鵬) 태안시장 접견 및 교류 확대 협약 체결
 - 한상기 태안군수와 왕운봉 태안시장은 태안시청 7층 회의실에서 그간의 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 문화, 관광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협약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태안시 기획전시관 시찰 및 태산간호전문학교 방문
 - 태안시 기획전시관은 태안시와 태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고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임.
 - 태산간호전문학교는 1956년에 설립된 간호전문학교이며 2011년에 간호대학으로 승격됨.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열렬한 환영식이 인상적이었음.



그림 5 태안시 고신구개발구 시찰



그림 6 우호교류 강화 협력 체결

4. 제4일차(10월 29일)

- 봉래각(蓬萊閣) 관광구와 고대선박박물관 시찰
 - 봉래각은 중국 내 최초로 지정된 국가 5A급 관광구로 송조 6년(1061년)에 건축됨. 예로부터 중국 고대 4대 명루로 불리고 8신선이 이곳에서 바다를 건넌 전설로 유명함.
 - 봉래각 관광구 안에 있는 선박박물관은 산둥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대선박박물관으로 2012년에 개관함. 사업비는 약 1억 위안 소요됨. 과거 고려시대 고선박 실물이 전시되어 있는 등 고려시대 해저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태안군과 많은 역사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역사교류의 가능성이 큼.
- 삼선산(三仙山) 관광구 시찰
 - 삼선산 팔선과해 유한공사가 건립한 관광구로 약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8년에 준공됨.
 - 고대건축물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5성급 호텔과 온천리조트 시설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관광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음.
- 봉래 경로어업 유한공사 시찰
 - 1999년 6월에 설립한 회사로 수산물 가공, 유통, 원양어업, 양식업, 판매 등을 하는 종합회사임.
 - 오징어, 고등어, 삼치, 연어, 새우 등 가공 품종은 2,000여 가지에 이르며 중국 20여개 대도시에서 판매하고 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에도 수출
 - 중국 산둥성 내 6대 수산기업으로 매출액은 6.6억 위안이며 중국 전체 시장에서 약 1%의 점유
- 봉래시장 예방 및 교류의향서 체결
 - 봉래시 국빈와이너리 회의실에서 한상기 태안군수와 손업보 봉래시장시장 양 지역 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향후 교류 방향과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눔.
 - 태안군과 봉래시는 해안도시이자 수산업과 농업이 발달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7 봉래각 시찰



그림 8 봉래고선박박물관 시찰



그림 9 삼선산 관광구 시찰



그림 10 봉래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5. 제5일차(10월 30일)

- 영성시와의 우호교류 협력 타진
 - 영성시 해양식품 전시센터 내 회의실에서 영성시 양후명 시장보좌관, 양의위 주임, 심용복 부주임 등을 만나 우호교류를 위한 의견 교류
- 해양식품전시센터 시찰
 - 영성시의 해양식품 기업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국가 3A급 관광지
 - 해양식품 전시세센터로 영성시의 해양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발전상을 전시하고 있음.
- 용안항(龍眼港) 시찰
 - 2016년 말 서산시 대산항과 여객선 취항 예정인 영성시 용안항은 평균 수심이 12m로 깊어 천혜의 항구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이용객 대다수는 보따리상으로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좌석이 항상 매진 상태라고 함.
- 호당가(好當家) 그룹 시찰
 - 중국의 유명 식품브랜드로 연 10만 톤의 수산물 가공식품,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식품전문기업으로 양식, 어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까지 진출하고 있음.
 - 중국 최대 양식장을 운영 중에 있음에도 계속해서 양식장을 확장하고

있음. 건해삼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태안군과의 교류 확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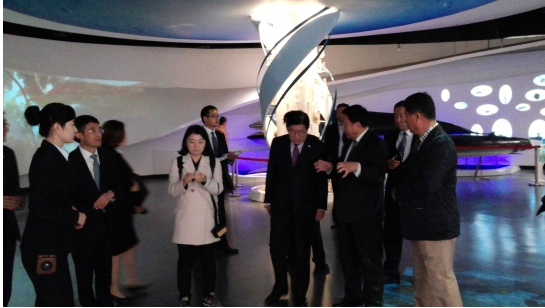


그림 11 영성시 해양식품전시센터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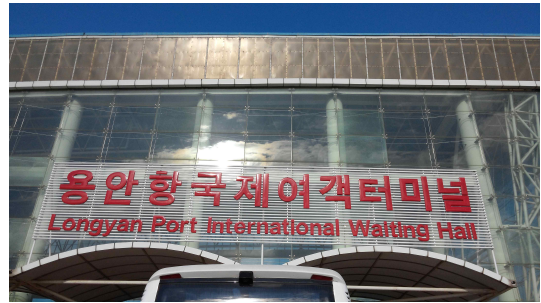


그림 12 영성시 용안항 시찰



그림 13 호당가그룹 수산식품가공장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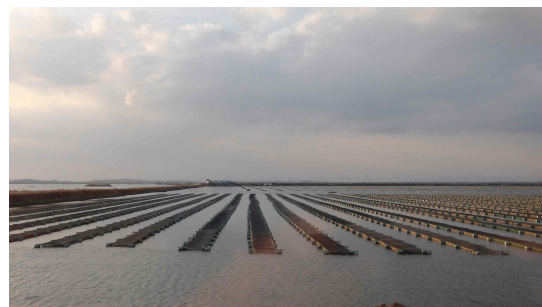


그림 14 호당가그룹 양식장 시찰

6. 제6일차(10월 31일)

○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시찰

- 해상 무역왕 장보고가 세운 신라인의 불교사찰로 당나라 때 신라인들의 의지처이자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던 예배처
- 적산법화원 내에는 장보고기념관은 중국 내 외국인을 기념하기 세운 유일한 곳임.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5 적산법화원 내 대명신 전경



그림 16 적산법화원 내 장보고 장군동상

Ⅲ. 태안군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1. 〈堅持泰山, 開拓蓬萊〉정책 실시

-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해양에서 찾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산둥성을 시작으로 광둥성, 절강성을 블루이코노믹존(남색경제발전계획지구)으로 설정해 중국 미래의 성장 동력을 해양에서 찾고 있다.
- 따라서 태안군은 기존의 태안시와 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산둥성의 숨은 보석같은 해안도시 봉래시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 봉래시는 8신선이 바다를 건넜다는 봉래각(국가 5A급 관광지), 8신선의 선계를 형상화해 관광지화한 삼선산(三仙山)이 있으며, 세계 7개 해안포도 생산기지와 70여 개의 포도주회사가 있어 미래의 해양, 관광, 농업, 휴양,

레저로 큰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 향후 양 지역은 공무원과 학생들을 상호 파견해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관광, 농업, 수산업 관계자들을 수시로 파견해 양 지역의 선진 정책과 기술을 학습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태안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國泰民安門〉 설치

- 태안시와 태안군의 지명은 國泰民安에서 취한 만큼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교류활동을 한층 심화하는 상징적인 활동과 사업이 필요하다.
- 따라서 태안군은 태안시의 태산 입구에, 태안시는 안면도의 입구에 <국태민안문>을 설치해 두 지역 간 교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태산 앞에 태안군에서 만든 <國泰民安門>이 설치될 경우 태안군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위해시 한중무역성에 설치된 여수문이 있다. 위해시와 여수시는 자매결연 도시로 여수시에서 위해시의 한중무역성 앞에 세워졌다.

- 태안시는 현재 북경-상해, 상해-연태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민국 태안군에서 <國泰民安門>을 설치해줄 경우 태안군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대폭 향상될 것을 판단된다.

3. 태안군 안면도에 〈한중교류역사문화관〉 설치

- 태안군은 고래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중국 교류의 거점기지이다. 수많은 교역선이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나아갔고 중국에서도 수많은 교역선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
- 따라서 단순히 해저 발굴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뛰어넘어 한중 간 교류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전시, 체험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 이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투자를 적극 유도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도 자신의 지역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시관 건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 봉래시의 <봉래선박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태안군은 특히 선박과 관련이 깊다.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수 없이 침몰한 교역선, 풍도 앞바다에

서 일본 해군에 의해 침몰한 청나라 대양함대, 최근 태안 앞바다를 오염시킨 허베이스피리트호 등. 따라서 <한중교류역사문화관>이 건립할 시 그 주 테마는 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사업은 국가급 프로젝트 제안 사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태안군청 공무원과 군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 확대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공무원과 군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G2로 등장했지만 우리나라,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G1로 부상했고 향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키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충남도의 전체 수출량 가운데 대중국 수출 비중은 47%,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을 포함하면 65%에 이른다. 향후 대중국 수출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공무원과 군민들이 중국을 더 깊게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들 한 두 명을 중국에 파견하는 것도 좋지만 단기 연수(1~3개월)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공무원들에게 중국을 이해하는 교육·연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중국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산둥 위해시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을 따라 잡기 위해 공무원의 60%를 한국에 파견해 한국어와 한국을 이해하는 정책을 펴 웬만한 공무원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한국사람들도 좋아한다. 그래서 현재 위해시는 한국을 이미 능가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중국과 친해질 수 없고 교류·협력에도 한계가 있다. 앎튼 군 차원의 중국어 장려제도도 필요하다.

- 또한 군청 내 국제교류 파트에 중국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수적이다.

※ 당진시의 경우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은 5년 이상 이 분야만을 전문으로 맡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의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가 비교적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끌고 있다.

-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획되는 대로 해삼, 전복 등 수산양식과 관광분야 종사자를 조직해 내실있는 중국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수박 겉핥기식의 중국 관광연수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중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올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안면도(安眠島)는 안민도(安民島)로 개칭 필요

- 안면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면도라는 이름은 맞지 않다. 원래 이름도 안민도였는데 일제가 안면도로 바꿨다는 주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서해안 해상교류의 중심축이자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진기지인 이 섬이 ‘편안하게 잠드는 섬’이라는 뜻인 안면도(安眠島)는 맞지 않다. 대신 교류와 교역을 통해 백성을 편안해 한다는 안민도(安民島)가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제가 이 섬의 중요성을 알고 이름을 그렇게 변경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은 잠든 섬, 펜션만 많은 섬이 되었다. 편안하게 잠든(드는) 섬에 누가 투자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풍설을 잘 따지는 중국 자본이 이러한 이름에 호감을 갖고 투자를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 따라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름이 모든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바른 이름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주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